

[국제리뷰 06-5] 여성 국가 수뇌부 국제동향

주준희 미국 LA 국제대학원 학장

19세기 말의 여성참정권운동이 20세기에 들어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간 후, 1975년경부터는 유엔 세계여성의 해와 함께 여성의 정치참여가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21세기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국가 수뇌부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기존의 유럽과 서남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와 중동에 확대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5년 11월에는 기독교 민주연합의 지도자인 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켈(52)이 사회민주당과의 화합을 통해 독일최초의 여성 수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국제무대에서 친화력을 발휘하면서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끌어올리고 외교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다. 2006년에 들어 1월에 아프리카 최초의 공화국 라이베리아의 미국유학파 민주투사 엘렌 설리프 존슨(67)이 아프리카 최초의 여성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3월에는 정치망명자였던 중도좌파연합의 미첼렛 바첼레트 제리아(55)가 칠레에서 53%의 표를 받아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각료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했다. 노르웨이의 첫 여성총리였던 드로 할렘 브룸트란트 총리도 여성장관의 수를 40% 이상으로 늘린 바 있다. 같은 달, 포르티아 심슨밀러(61)가 자마이카의 수상이 되었다. 4월 19일에는 한국의 한명숙 국무총리가 탄생하였다.

이들을 포함해 21세기에 활동하는 여성행정수반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중 아시아에서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후광을 입은 여성지도자들이 두드러진다. 칼레다 지아는 1981년 암살된 독재자 키아우르 라만의 미망인으로 세이크 하시나 와제드의 라이벌이다. 필리핀의 아로요 대통령은 전 대통령 디오스다도 마카파갈의 딸이고,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 역시 수카르노 전 대통령의 딸이다. 쿠라마통가 스리랑카 대통령의 어머니는 암살당한 남편의 뒤를 이어 수상을 두 번 연임하였으며 그 딸은 자신의 남편도 암살되는 비운을 맞본 후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어머니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다.

<표> 21세기에 활동한 여성 행정수반

이름	국가	직위	재직기간
찬드리카 쿠마라통가	스리랑카	대통령	1994-2005
칼레다 지아	방글라데시	수상	1991-96, 2001-현재
세이크 하시나 와제드	방글라데시	수상	1996-2001
매리 맥알리즈	아일랜드	대통령	1997-현재
다메 칼리오파 펠레트 루이지	세인트루시아	총독	1997-현재
제니퍼 스미스	버뮤다	수상	1998-현재
헬렌 클락	뉴질랜드	수상	1999-현재
미레야 엘리사 모스코소 드 아리아	파나마	대통령	1999-현재
바이라 비케 프라이버르가	라트비아	대통령	1999-현재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2000-2006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2001-현재
마메 마이오르 부아예	세네갈	수상	2001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2001-2004
루이사 디오고	모잠비크	수상	2004-현재
미칼 진	캐나다	총독	2005-현재
마리아 드카르모 실베이라	사오 토메와 프린시페	수상	2005-현재

뉴질랜드와 아일랜드에서는 여성수상이 계속해서 연임되었다. 아일랜드의 매리 맥알리즈 대통령은 역시 여성인 매리 로빈슨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43세의 변호사로 대통령이 된 아일랜드의 메리 로빈슨은 93%의 높은 지지율에도 연임을 포기하고 인권운동에 투신하여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남겼다. 헬렌 클락 뉴질랜드 수상은 제니 쉬플리 전 수상의 뒤를 이어 두 번째의 여성수상이 되었고 국제적 능력을 인정받아 후임유엔사무총장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재 뉴질랜드는 총독(담므 실비아 카트라이트), 대법원장(시안 시어폴 엘리아스), 수상(헬렌 클락), 야당지도자(메리 쉬플리)등 4개 핵심 권좌가 여성의 리더십 하에 있다.

한편 가까운 장래에는 보다 많은 여성이 국가 수뇌부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우크라이나의 수상이었던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 인도 집권여당의 당수 소냐 간디, 베트남의 트롱마이호아 부통령 등도 유력하다.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양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로 여성이 거론되고 있다.

여성 정치지도자들의 배경국가는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다. 명문가 출신도 있고 가난한 집안 출신도 있다. 화학, 의학, 법학, 교육학에서 정치학, 역사학, 공학에 이르기까지 전공도 다양하다. 강경파도, 유화파도 있다. 평화 시의 지도자도, 전시의 지도자도 있고, 선출직인 경우도 임명직인 경우도 있다. 임기가 짧았던 사람도 장기 집권한 여성지도자도 있다. 철의 여인도 있고, 부드러운 여성도 있다.

공통점은 대부분의 여성지도자들이 사명감에 불탄다는 사실이다. 또한 남성과는 달리, 대중의 인기를 힘입고 이를 십분 활용한다. 남성과 구분하기 힘들었던 초기의 여성 정치지도자들과는 달리 최근에는 자신의 여성성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뜨고 있다. 여성이기에 더 주목을 끌고 대중적 인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깨끗한 이미지로 진보성과 개혁을 상징하고,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의 리더십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성 각료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과거의 교육, 환경, 복지 등 ‘여성’ 분야뿐 아니라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핵심부서에 여성이 임명되고 있다. 최근 탄자니아에서도 외무부, 재무부와 법무부 등 핵심적인 부서에 여성각료가 임명되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연방정부의 12명 각료 중 외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6명이 여성이다. 영국 최초의 여성 외무부장관인 마가렛 베케트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바 있다.

국제 분야의 여성 진출은 아직 미흡하다. 뉴욕의 191개국 유엔 대사 중 여성은 18명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유엔의 상위정책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평화와 안보 분야의 여성의 참여는 저조하다.

여성 정치지도자의 성공은 여성 모두의 성공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지도자의 모습은 억눌리고 짓밟힌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자유를 주게 된다. 한편 진정한 여성 정치참여의 문제는 숫자를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어떻게 정치과정에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리더십이 상존하는 관계를 어떻게 창출하는가 하는 것이 21세기 사회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다.

<부록> 역대 여성 수상 및 대통령

이름	국가	직위	재직기간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스리랑카	수상	1960-65, 1970-77, 1994-2000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	1966-1977, 1980-84
골다 마이어	이스라엘	수상	1969-74
이사벨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	1974-76
엘리자베스 도미티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수상	1976-76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	1979-90
마리아 다 루르드 판타실고	포르투갈	수상	1979-80
리디아 규에일러 테자다	볼리비아	수상	1979-80
담므 유지니아 찰스	도미니카	수상	1980-95
비그디스 핀보가도티르	아이슬랜드	대통령	1980-96
그로 할렘 브룬트란트	노르웨이	수상	1981, 1986-89, 1990-96
송칭링	중국	명예주석	1981
밀카 프래네크	유고슬라비아	수상	1982-86
아가타 바바라	말타	대통령	1982-87
마리아 리베리아 피터즈	네덜란드 안틸레스	수상	1984-86, 1988-93
코라존 아퀴노	필리핀	대통령	1986-92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수상	1988-90, 1993-96
카지미에라 다누타 프룬스키에나	리투아니아	수상	1990-91
비올레타 바리오스 드 차모로	니카라과아	수상	1990-96
매리 로빈슨	아일랜드	대통령	1990-97
에타 파스칼 투루일롯	하이티	대통령	1990-91
사비네 베르그만-폴	동독	대통령	1990
아웅산 수키	미얀마		1990, 군사정부가 인정 거부
에디트 크레송	프랑스	수상	1991-92
하나 슈쇼카	폴란드	수상	1992-93
김 캬벨	캐나다	수상	1993
실비 키니기	부룬디	수상	1993-94
아가테 우워링기마나	르완다	수상	1993-94
수산느 카멜리아 로메르	네덜란드 안틸레스	수상	1993, 1998-현재
탄수 질레르	터키	수상	1993-95
찬드리카 쿠마라통가	스리랑카	수상/대통령	1994/ 1994-2005
레네타 인드조바	불가리아	수상	1994-95
크라우데트 웰리	하이티	수상	1995-96
파멜라 고든	버뮤다	수상	1997-98
자넷 자간	구야나	수상/대통령	1997/ 1997-99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수상	1997-99
루스 드라이푸스	스위스	대통령	1999-2000
니암 오소린 투야	몽고	수상대리	1999년 7월